

제 1 장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

서론: 언약 (covenant) 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들로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사랑과 공의로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편 103:17-18; 시편 117편) 창조주 하나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역사를 다스리신다. 주전 4,000년 경 첫 사람, 아담과 그리고 주전 2,500년경 노아와, 주전 2,000여년 경 아브라함 (창 15:1-18), 주전 1,500여년 경 모세와 (출 24:1-10), 주전 1,000년 경, 다윗 (삼하 7:1-17; 시 89:3)과 언약을 맺으셨다. 주전 627년부터 40여년동안, 이스라엘의 대표적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였다. 다윗왕가의 유대 왕들이 끝까지 우상숭배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서 약속하신대로 형벌을 내리셔서,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을 인간몽둥이로 드셔서, 예루살렘성전을 가루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백성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어 가셨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마침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장 복된 소식, 곧 “새로운” 언약 (렘 31:31-34)이 성취될 날을 예고하셨다. 그 후 600여년이 지나서, 인류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새언약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부활하셔서, 새언약을 세우심으로 완성되었다 (참조: 막 14:22-24과 병행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언약, 모세언약, 다윗언약, 그리고 새언약의 공통성을 살펴 정의하면,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맺은 약정 (約定)이다.” (A covenant is a bond-in-blood, sovereignly administered by God.)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를 수립하실 때 주권적으로 삶과 죽음의 약정 (bond)을 세우신다.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 또는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약정이다. (참조.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The Christ of the Covenants)*, 팔머 로버트슨 (O. Palmer Robertson) 지음, 김 의원 번역. 11쪽 이하).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브리트”으로, “언약, 동맹”을 뜻하며 희랍어원어는 “디아테케”로, “언약, 협정”을 뜻한다. 고대 사회의 근동지역에서는, 국가 사이, 씨족, 부족 및 내부 결속을 위해 여러 협정들을 만들어 왔다. 근동지역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물을 죽이는 의식과 일정한 형식의 선언이었다. 누구든지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죽은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언약이 체결되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요나단과 서로 협력할 것을 언약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과 건축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성경 전체 맥락에 주제가 되는 중요한 언약 중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들과 맺으신 것으로 아담과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다. 구원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아브라함언약 (창 15, 17장)과 모세언약 (출 19-24장), 다윗언약 (삼하 7:1-17),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새언약 (렘 3:31-34)이 있다. 새언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드리셔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막 14:22-24와 병행절). 언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언약 안에 완성되었으므로, 구약과 신약은 약속과 성취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도날드 구스리, *신약신학*, 기독교문서 선교회, 1-50쪽 참조).

아브라함언약은 믿음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15장). 모세언약은 율법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제정해서 밝히 보이셨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셨다 (신명기 28장).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왕조의 존립기반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게 하셨다 (삼하 7:1-17). 하나님은 그와 맺은 모든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게 하심으로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 선포하신 저주를 이루셨다. 그리고, 장차 새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 새언약의 예언대로 600여년 후,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죄의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시는 새언약을 세우

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언약은 죄의 용서와 영생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 복음이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새언약의 예표였다. 새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고, 나아가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선포함으로 더 이상 어떤 언약도 필요 없는 완전한 언약이다. 그러므로 신약, 새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참조: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아가페, 1991) 1147-1151.]

1. 언약은 약정이다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언약이란 사람을 한데 묶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언약이 성립되는 근본 구성요소는 세워진 약정의 성격이 구두 선언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피조물과 결속하였고, 또 창조물과 자신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하여 은혜가운데 말씀하신다. 언약에 있어서 서약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첫째로, 구두 서약 (verbal oath)이 있다 (창 21:23-26, 램 31:31-34). 둘째로, 구두 서약에 상징적인 요소가 첨가되는데, 그 예로 동물을 잘라 쪼개는 일 (창 15:10,18), 피뿌리는 일 (출 24:8), 등이 있다. 성경적 언약에 있어서 표적 (sign)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사람들을 한데 묶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할례의 표적, 안식일의 표시 등은 언약의 구속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이는 신랑과 신부가 지속적 사랑의 서약으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언약의 표적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영원한 약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참조. *계약신학*, 12쪽 이하)

2.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

“피로 맺은 약정” (bond in blood), 즉 삶과 죽음의 약정이라는 구절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결속 (commitment)의 궁극성을 표현한다.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우연한 혹은 비공식적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약정의 의미는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까지 포함된다.

구약성경에서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번역되는 구절은 문자적으로 “언약을 자른다” (karath brieth)이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문구는 구약성경 전체에 뚜렷이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언약 시작에 (inauguration) 이 표현이 처음 나온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경고는 “언약을 자르는 (cutting covenant) 신학”을 암시하고 있다 (렘 34장 참조). 이스라엘 주변 문화에서도 언약의 결속의 성질은 “절단”이라는 술어와 관계가 있다. (계약신학, 18쪽 주 참조)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과의 언약 (창 15:18; 출 24:8; 렘 31:31)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은 먼저 동물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그 후 하나님께서 쪼갠 동물 사이를 상징적으로 지나가셨다. 그리하여 언약이 “이루어지고” “절단”되었다. 언약 수립 (inauguration)의 시점에서 동물 절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물 절단은 언약 체결 시에 “죽기까지 서원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잘려진 동물은 서약한 사실을 범할 때 언약자 자신에게 임할 저주를 나타낸다. 주목할 것은 잘려진 동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범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것을 보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심으로 이 약속을 완성하셨다.

예레미야 34:18 말씀에 보면,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성을 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소 사이로 지난” 그들의 예식을 기억하게 하신다. 불충성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언약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몸이 동간 날 것과 그들의 시체가 “하늘과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을” (렘 34:20) 예견하게 된다.

“언약을 자른다”는 성경적 구절은 언약의 수립하는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언약 관계를 수립하는데 쓰이는 술어의 전체적인 개념은 삶과 죽음에의 서원(pledge)이다. 언약이란 이렇게 “피로 세운 약정” 또는 “삶과 죽음의 약정”인 것이다. “피의 약정”이란 말은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히 9:22)는 성경의 강조점과도 잘 부합된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명이 피 속에 있고 (레 17:11), 피흘림은 심판을 나타낸다. 언약은 당사자들이 죽음의 고통을 치루고서라도 충성을 해야 하는 “피의 약정”이다. 곧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죄지은 인간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여 죽으셨다. 곧 그리스도께서 언

약의 저주를 자신이 지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최후의 만찬은 언약의 저주를 그리스도 자신이 담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죽으심으로 세우실 새언약을 제정하신 만찬이었다. 그의 죽으심은 대속적이었으며 그의 피는 백성을 위해 “흘려진” 것이었다. 최후만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말씀은 언약의 성취와 수립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성만찬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유언이 아니다.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결과를 지닌 결속을 포함한다. 언약 수립의 시점에서 당사자들은 피 흘림의 과정을 만들어서 서로를 결속하게 한다. 이 피흘림은 언약의 결속이 강화됨을 표현한다. 언약에 의해서 그들은 삶과 죽음에까지 묶여지는 것이다. (참조. *계약신학*, 16쪽 이하)

3.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Administered) 피로 맺은 약정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주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흥정, 교환, 또는 교섭이 있을 수 없다. 천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제 2 장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 맺어진 언약들은 구약성경 기간 전체에 퍼져 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 밖으로 쫓겨날 즈음에 주어진 새언약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성취함을 보게 되고, 역사의 끝 날까지 이어졌다 (렘 31:31 이하; 눅 22:20; 히 8:8). 창세기 기사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노아 이전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언약”이라는 명칭이 성경에 두 군데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 “주야의 약정” 렘 33:20, 25; 참조 창 8:22). 창조 질서에 “언약”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선언한 말씀에서이다 (호세아 6:7). 이 두 말씀의 분석을 통해 팔머 로벗슨은 창세기 처음 몇 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노아 이전의 인간과 하나님

과의 관계를 언약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창세기 3:15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볼 수 있다.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약정은 여인의 후손에게는 생명을 (참조: 갈 4:4), 그리고 사단의 후손에게는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창조에 의하여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자신과 인간을 결속시키셨고, 인간의 타락 이후 창조주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간성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또다시 자신을 결속하셨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언약적 결속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정지어 왔다.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는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 (참조. *계약신학*, 23 쪽 이하)

제 3 장 하나님의 언약의 통일성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일련의 언약 관계를 계시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주요 언약들을 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어진 것과 새언약등이 있다. 최초의 창조 관계도 언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 역사에 퍼져 있는 다양한 언약 사역 (Covenantal Administration)에는 그것을 한데 묶는 통일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치성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구조적 통일성이고, 둘째, 주제의 통일성이다.

1.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적 통일성: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의 통일성

1) 역사 경험에서의 통일성

각 언약의 배경 역사는 이들의 통일성과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언약들의 일맥상통하는 통일성은 역사적 경험의 연속성이다. 인간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또한 모세와 다윗의 언약 아래에서 살았다. 모세와 다윗 하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관계를 창시하는 그 시점에서 볼 때, **먼저 약속하신 것과 같은 구속의 약속을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이끄신다.**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모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통합시키고 있다. 출애굽기 6:4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권적으로 모세 시대에 역사하셨다. 모세 언약의 중심을 이루는 십계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 출애굽의 구속역사에 굳건한 기초를 두고 있다.

다윗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삼하 7:8,23).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불렀던 다윗의 노래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다윗이 있음을 보여준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 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대상 16:15-18).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왕권이 수립됨을 상징하는 다윗 시대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1. 2) 혈통의 통일성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적으로 관계를 맺으실 때, 그는 혈통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도록 만드셨다. 이런 혈통적인 면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후손” 개념을 언급할 때 특히 명시된다 (창 15:18; 출 20:5,6; 삼하 7:12). 다윗의 후손은 단순히 다윗의 언약에 따른 상속자만이 아니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에 따른 약속의 상속자이기도 하다. 언약에 몇 세대가 포함될 수 있는가 물어 보자.

“그는 그 언약 곧 천 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시편 105:8-10)

위 말씀에서 보면, 언약의 약속이 천 대까지 이어진다. 천 대라는 말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혈통적인 강조는 영원한 “계승” (succession)의 개념을 포함한다. 신명기 7:9에서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구절은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특히 가치가 있다. 출애굽기 20:5-6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고 하셨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신명기 7:9과 동일하다.

사도행전 3: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에서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의 혈통적 규정은 새언약으로까지 연장된다. **혈통적 차원의 언약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성령의 선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사야 59:21).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59:21).

신약에서 이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곧 아브라함의 축복은 성령을 받는 것과 관계된다. 바울에 의하면 새언약의 신자들에게 있어 성령의 선물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으로 주어진다. (갈 3:13-14).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적 차원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접붙임**”의 원리요. 둘째는 “**가지치기**”의 원리이다. 첫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 태생이 아닌 사람들의 “접붙임”이 가능했다 (창 17:12, 13). 이스라엘백성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모든 음식규례를 지키면 개종자가 되어, 이스

라엘백성으로 접붙임받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 어느 민족이라도 온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인이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롬 11:17, 19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둘째로, “가지치기”의 원리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라도 자기의 특권의 자리에서 제거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가르침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히 증거된다. (롬 9:13).

새언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에 나타난 예언된 약속의 실현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새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완성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는 최후 만찬에서 언약에 수반된 제의적 식사 때 (the covenantal meal), 새언약을 공적으로 세우신다. 잔을 들고 그리스도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눅 22:20)고 하셨다.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는 그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눔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임을 말씀과 동시에 행동으로 알리고 있다. 더 이상의 언약은 없다.

기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새언약 관계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인데, 이것은 새언약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증거된다. 롬 16:20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참조: 창 3:15)말씀은 **아담의 타락 이후 선포된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을** 보여준다.

2. 하나님 언약의 주제적 통일성

언약 관계의 최종 결론으로 한 구절이 되풀이 된다.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 구절이나 비슷한 구절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하나님 언약의 통일성을 나타낸다. 이 구절은 “**임마누엘 원리**”라고도 부를 수 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다.

2. 1) 이 주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언약 관계에서 천명됨

이 관용적인 표현은 **언약의 핵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모세 언약에서 이 구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은 뚜렷하게 강조되어 자주 나타난

다 (출 6:6,7).

같은 공식이 다윗의 언약에서도 나타난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왕하 11:17).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에서 다윗의 왕위 계승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와의 백성” (a people for Yahweh)으로 삼는 일이다. 예언자 에스겔은 언약의 핵심적 주제의 말로서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한다. 그 전체 구절은 첫째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둘째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되리라.” (겔 34:24). 언약의 대표자로서 다윗은 전 국민을 대신한다.

새 언약도 이와 같이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용어로서 설명된다. 스가랴 8:8에 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하여 스가랴는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슥 8:16)고 권면한다.

히브리서 8:10과 고린도후서 6:16은 언약의 핵심용어가 새 언약 시대에도 적용됨을 보인다. 고린도후서에서, 기독교인은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 6:16)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구별된 거룩함으로서의 소명은 언약의 공식 용어에 가장 잘 적용된 말이다 (레 11:44이하).

“그들의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의 핵심적 주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이 주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거하신다는 사실과 연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그 의미가 점점 중요하게 표현된다.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장막의 모양에서 성전의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것은 성육화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의 최후의 영광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의 거하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개념의 핵심과 직접 연관된다.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실제적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다.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언약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예고하신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26-28).

언약의 핵심인 “임마누엘” 원리는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아들로써 인간육신에 “거하신다” (장막으로 오시다, 요 1:14).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함께 지어진 주의 성전”이다 (엡 2:21이하).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위에 하나님은 그의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다 (계 7:15). 언약의 핵심적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3에 마지막 나타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서서.”

이 구절은 창조질서와 관계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그들과 완전히 거하는 길을 마련하게 하신다 (계21:1).

B. 이 주제는 한 사람에게 의해 실현됨으로써 절정에 이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제는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된다.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과 일치되는 것이다. 왕이지만 고통을 담당해야 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는

“백성에 대한 언약과 이방에 빛이 되도록” 지명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이다 (사 42:6; 49:8). 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결정적인 완성을 보게 된다. 그는 하나님 왕국의 머리이며 언약의 실현자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 한 사람 속에서 구체화된다. “왕국”과 “언약”은 이 한 분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그는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한다 (마 26:28; 눅 22:2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은 구체적인 통일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의 중개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기 때문에 언약들도 또한 나뉠 수 없다. 그리스도 자신은 언약의 통일성을 보증한다. (참조. 계약신학, 58쪽 이하)

제 4 장 하나님의 언약의 다양성: 옛 언약 /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구조적으로, 주제면에서 하나이다. 동시에 역사 속에서, 언약은 다양성을 보인다. 그리스도 이전의 하나님과 인간의 유대는 “옛 언약”으로, 그리스도 이후의 유대는 “새 언약”으로 부를 수 있다. 옛 언약은 “약속”, “그림자”, “예언”으로 특징지어지며, “새 언약”은 “성취”, “실재”, “실현”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같이 구별한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 역사와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 대조를 말한다. 둘째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시대와 모세시대를 대조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과 유대주의자의 잘못된 복음을 구별하고자 함이다.

제 4 장 창조의 언약

창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약정을 주권적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최초의 약정은 창조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1. 창조의 언약

(1) 안식일

안식일을 복주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창 2:3),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안식

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출 20:8).하나님은 인간을 일의 노예에서 구출함으로써 안식일을 통해 복주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택하여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도 안식해야 한다. 이 날에 여호와와 모든 창조를 쉬시고 “평안을 얻었다.” (출 31:17). 안식년과 희년까지 더하여 (사 61:1-3) 기념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땅도 여호와께 안식을 기념하게 되어 있었다 (레 25:1-7).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생겨나게 한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활동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구원계획을 부활 속에서 최후로 완성시켰다.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달성된 안식 속에서 기뻐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가 이미 달성한 승리를 통해서 성공을 확신하며 6일 동안의 일에 즐거이 참여하게 된다.

(2) 결혼

첫째, 결혼 약정에 포함된 결합의 신비가 주목된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에 의해 세워진 결혼 규례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마 19:4,5). 이들 한 몸은 결혼에 의해 이루는 상호 결합을 강조한다. 둘째,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특징짓는 내부 구조를 결정하고 있다. 사도바울이 말한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함으로 결혼관계에서 희생과 책임을 강조한다. 여자는 남자의 동등한 내조자이다. 셋째로 전체성과 배타성을 강조한다. 동성연애는 창조질서에 위배된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구원 목적에서 연속적인 의미를 가진다. 종족 번식은 하나님의 구원목적이 실현되는 주요 수단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구조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구원목적을 이루하신다.

(3) 노동

의미있는 안식의 개념은 노동에 의해서만 경험될 수 있다. 7일 중 하루 쉬는 것은 분명히 6일 노동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다. 노동은 의무이며 또한 축복이다. 하나님

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독특한 책임이 있다 (창 1:27-28). (참조. *계약신학*, 74 쪽 이하)

2. 창조의 언약: 특수한 점

창세기 2:17금지 명령은 인간을 시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다. 선악과에 대한 금지는 창조자에 대한 인간의 복종을 요구하고 시험한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한 순종 행위에 달려 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
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8,19).

창조언약은 분명히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는 “주권적으로 맺어진 삶과 죽음의 약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저주와 축복, 삶과 죽음 이것이 창조 언약 아래서 인간이 직면한 양자택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궁극적인 저주를 스스로 지게 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제 5 장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은 창조의 언약 아래 인간의 실패와 함께 곧 세워진다. 하나님은 특별한 창조질서로써 자신과 인간을 결속하셨다. 심판 한가운데 구속의 희망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이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묶는 것이다. 창조 언약에서 저주 말씀은 동시에 구속의 언약을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주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야 할 책임이 있다. (참조. *계약신학*, 87쪽 이하)

제 6 장 아담: 시작의 언약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약속의 여러 요소들을 균형 있게 나타내신다. 창 3:14-19은 구속 언약에서 아담과 뱀은 언약 사역의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다. 사단,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말씀하신다. 저주와 축복이 말씀에 나타나는데 이는 창조언약과 구속 언약이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 사단에게 하신 말씀 (창 3:14,15)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의 구속역사는 인간과 그가 창조된 배경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유혹자로서 사단의 과업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여자를 현혹시키는 것이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
이라” (엡 6:12).

하나님께서 원수되게 하신 것을 영원히 계속되게 하실 것이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마지막 기대되는 것은 인간과 죄의 적대감일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단과의 투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1) 하나님은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다.

최종적으로 사단의 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낼 후손을 낳을 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기 위해 여자가 먼저 언급될 수 있다.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낼 한 사람을 준비하실 것이다.

(2)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관계가 놓여진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 4:4), 그는 그의 적수들이 “아비 마귀”에서 나서 그를 살인하는 일에 가담할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요 8:44) 두 “후손” 간의 대립은 그 후 역사에서 계속될 긴 투쟁을 예견하고 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은 시대를 통해 서로 대립한다. 창세기 3:15에서 “그”는 남성 단수로 여자의 “후손”을 가리킨다.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로마서 16:20에서 같은 말씀이 나온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복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사단은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아 전적으로 패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0편에서 다가올 메시아의 승리가 묘사되고 있다. 곧 원수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시 110:6). 여자의 약속된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사단으로부터 상처를 겪었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단의 후손을 정복함으로써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 곧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적을 궤멸시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갈 4:4).

원수에게 저주가 내리라는 구약성경 시편기자의 저주하는 말씀은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왔던 “멀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롬 9:22)을 파괴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 악한 자에 대한 최종 승리는 성취될 것이다.

2. 여자에게 하신 말씀 (창 3:16).

여자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여자의 역할과 관련된다. 한편,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을 소유하려고 할 때 남편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지배하려 할 것이다.

3. 남자에게 하신 말씀 (창 3:17-19).

남자에게 하신 말씀도 저주와 축복을 모두 포함한다. 인간의 저주는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심한 노동을 해야 한다는데 있다. 최종적 저주는 인간을 무덤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사단에 대한 적대감을 주신다. 이런 자는 여자의 후손임을 나타낸다. 또 다른 자들은 계속 타락 상태에 있게 된다. 이들은 사단의 후손을 대표한다. 아담의 노동은 전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게 해야 하는 책임과 함께 창조 언약에서의 본래 문화명령을 반영한다. 우리는 지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는 영광된 권세의 자리에서 만물이 그가 구속한 인간들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제 7 장 노아: 보존의 언약

노아 언약의 특성 (창 6:17-22;8:20-22;9:8-1)

1.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의 면밀한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모든 생물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노아 언약은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연합시킨다.

2.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이성을 말하고 있다.

많은 타락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은 한 인간과 그 가족을 은혜로 이끄셨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의로움때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특이성에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선물이다 (엡 2:1,8-10).

3.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가족을 다루신다.
4.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살인한 동물이나 인간을 정확히 심판하실 것이다. 인간을 죽인 자는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제정은 인간 속에 있는 악을 제한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5. 노아 언약은 명확히 보편적 면을 갖고 있다.

창조를 통해 자신의 증거를 땅 끝까지 위탁한 하나님은 또한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며 모든 사람의 “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롬 10:12).

6. 노아 언약의 표적은 언약의 은혜로운 특징을 강조한다.

제 8 장 아브라함: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권적인 면은 조상으로부터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명백해진다. 창 12:1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것은 엄숙한 명령이며, 부드러운 제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의 언약에 대한 말을 주권적으로 명령하신다. 창 15장 내용은 “**주권적으로 맺어진 피의 약정**”이라는 언약의 핵심을 명확히 지적한다.

1. 아브라함 언약의 공식적 수립

아브라함 후손은 400년 동안 타국에서 억압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15:16).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18절).

왜 언약을 맺을 때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가? 만일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약 당사자들의 몸은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언약 수립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서약함으로써 “**피의 약정**”이 세워지게 된다. 언약의 쌍방은 언약 관계에서 자신들의 생과 사를 걸고 약속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엄숙한 피의 맹세로써 자신과 인간을 결속시킨다.

2. 아브라함 언약 수립 예식에 대한 계속적 언급

예레미야 34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모세의 언약 예식은 그 형태가 바뀌기는 했지만 아브라함 약속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3. 아브라함 언약의 표적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공식적 표적이 세워지는 것을 기록한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적으로서 할례는 약속의 확실성을 깨우치기 위해 그와 함께 영원히 남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의 표적인 성령과 비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표적인 성령은 구원의 날까지 그의 약속의 표시로서 신자들과 같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엡 1:13,14).

1) 할례의 최초의 의미

(1) 창세기 17:9-14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하셨다 (창 17:1).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이것이 내 언약이다” (창 17:10).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하셨다. 할례 예식은 첫째, 죄를 지은 하나님 백성이 깨끗해 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 언약적 표징과 종족 번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다루시고자 하심을 나타낸다. 할례의 예식으로 증명되는 언약의 약속은 가족 단위의 결속을 말하고 있다.

2) 구약 역사와 신학에 있어서의 할례

할례 예식으로써 인간은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함

께 할례 받은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된다”.

3) 구약 성경의 상징이 신약에서 성취됨

아브라함 언약의 표적도 그 상징 속의 진실이 신약성경에서 성취되었다. 이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다. 영광스러운 새 언약이 시작되면서, “옛 언약의 것들이 필요없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갈 4:4).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죄를 몰랐다. 그러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깨끗하게 하는 규정된 예식을 받았다 (마 3:16). 백성들의 의무를 스스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다는 표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할례를 받고, 후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의 깨끗하게 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할 죄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의 언약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창세기 15장에 설명된 엄숙한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 약속은 말씀의 독특한 면에 의해 강조된다. 예상 외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진 시체를 지나가신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모든 약속이 실현되어야 할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맡으셨다. 쪼개진 사이로 자신이 지남으로써 언약 관계의 은혜적 특징을 극적으로 표현하신다.

새 언약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새 피조물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런 혁신적 관점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유대 신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 같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셨다 (행 15:8-9). **(계약신학, 160쪽).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는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아브라함언약의 핵심인 창세기 15:6을 인용하여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복된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다.**

제 9 장 모세: 율법의 언약

1. 현대 성경 비판에서 모세의 위치

모세 오경 자료의 기원과 정립에 대한 역사비판적 관점에 의하면, 모세가 모세 오경의 저자임을 부인한다.

1) 오경 자료와 히타이트 조약

그러나 모세와 동시대의 것으로 발견된 히타이트 조약의 고전 형태가 신명기전체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가 모세시대의 것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2) 오경 자료와 “신명기역사”

마틴 노쓰는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성경의 전부분을 하나의 단위로 연결하는데 그 최종 형태는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팔머는 신명기 신학이 모세 시대에 속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여호수아, 열왕기하 관계에서 성경 메시지의 놀라운 일관성을 발견한다.

2. 모세 언약의 신학적 의미

히타이트 조약과 오경 관계를 요약함은 모세 언약의 신학적 토론에 주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여기서 언약은 법을 능가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히타이트 조약 핵심은 지배하는 군주와 지배 받는 봉신의 관계를 세우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실 때” (출 2:24) 시작된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이 세워진다. “나는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로 시작하는 십계명은 시내산의 율법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기본 내용이다. 즉 여호와와 그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이 기본적 구약성경 원리는 이

들 법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하는 개념이다. 언약은 사람들을 묶는다. 구체화된 법적 조항은 언약 사역의 한 방식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모세언약을 통해 그의 백성과 맺은 옛 약속을 새롭게 하신다.

1) 모세 언약의 특징

하나님의 뜻을 외형적으로 기록하고 구체화하여,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요약한 것이 모세 언약의 특징이다. 오경에서 십계명을 강조한 것과 이 십계명과 언약 자체를 동일시한 것은 모세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의 율법을 외형적으로 요약한 것임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 하셨더라” (출 34:28). 따라서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요 1:17).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모세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특징짓고 있다 (갈 3:17).

모세 언약은 분명히 죄인 된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다. 모세 언약의 법적 규정에서 대리의 희생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과의 관계 사이를 구별하는 법을 알게 해 주려는데 있다. 돌 판에 언약 규정을 기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외형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바울이 적절히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의 은혜로운 약속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약속 후 400년 뒤에 나온 율법 언약이 이전 언약을 폐지할 수는 없다 (갈 3:17).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언약은 그 처음 수립 때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창세기 15:6에서 세워진 원칙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 언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여기셨다. (참조. *계약신학*, 176쪽 이하)

2) 구속 역사 속에서 율법 언약의 위치

율법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율법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전체와 점진적으로 연관된다. 율법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보게 된다.

(A) 율법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전체와 기능적으로 연관된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창 9:6).

(a) 법은 모세 이전의 모든 언약에서도 중요했다 (창 9:6).

(a) 법은 모세 이후의 모든 언약에서도 중요했다.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은 구속사에서 하나님 법의 중요성을 계속 나타낸다. 모세 시대 말기 이스라엘 역사는 “왕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왕권수립은 다윗 언약이 세워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모세 율법은 다윗 언약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윗 언약은 시내산 법과 별개로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시편 기자는 노래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 119:97).

“십계명”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율법의 역할을 확인하는 신약성경의 증명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 내의 법에 대하여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들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롬 6:14).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롬 7:6).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7).

바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이해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았다. 유대주의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구체화되고 성문화된 율법이 아브라함 하에서 구체화된 믿음의 원칙과 다른 생명의 길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 (i)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수많은 권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가정한다. 새 언약 하에서 성령은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하나님 뜻과 일치하도록 이끄신다.
- (i) 불의하게 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권 고를 신약시대 신자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다 (히 12:6). 징계하지는 하나님과 율법의 계속적 효능을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 기독교인은 그들이 행한 행적에 따라 판단받게 될 것이다. (참조. 계약신학 179쪽 이하)

(B) 율법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과 점진적으로 연관된다.

- (a) 모세언약은 앞선 언약들보다 발전된 언약이다.
- (b) 백성의 국가화와 포괄성에서 나타난다.
- (c) 모세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계시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 (d) 모세 언약은 후에 나오는 언약보다는 미숙하다.

옛언약은 돌판에 주어졌다. 예레미야 31:31-34는 새언약은 마음에 새겨질 완벽한 법이 될 것을 보인다. 고린도후서 3장은 모세의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함을 잘 묘사하고 있다. 즉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요, 수건으로 가리워진 영광임을 지적한다 (195).

3. 모세언약과 새언약 관계

비록 옛언약이 영광을 가졌으나 새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음을 보인다. 이는 새 언약은 영의 사역, 의의 사역으로서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모세 언약의 이러한 성격은 새 언약의 영원성과 대조된다. 바울 시대 비극적인 일은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모세 언약의 일시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율법의 중개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의 직분을 가졌다. 그러나 새언약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증거한다(참조. *계약신학*, 189 쪽 이하)

제 10 장 다윗 언약/ 다윗언약

3. I. 사무엘하 7 장 분석

4. 1. 다윗언약의 역사적 배경

- 1) 예루살렘을 중심한 중앙집권체제 확립
- 2)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 확고히 함
- 3)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누리게 하심

5. 2. 언약의 핵심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 (삼하 7:9).

6. 3.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게 될 것을 보이셨다 (삼하 7:13).

7. 4. 다윗의 아들 /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로마서 1:3-4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참조: 히브리서 1:5은 같은 사상을 시편 2편, 삼하 7장을 인용하여 증거)

다윗언약은 다윗의 아들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경고하셨다. 열왕기역사는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징계받았음을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징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셨다.**

5. 중재자로서 왕의 임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 언약의 중재자로서 위치 (왕하 23:1-3요시아의 언약 갱신)

6. 예루살렘과 다윗 왕권

다윗 언약에 따른 은혜로 보존. 북이스라엘 불안정과 대조

8. II. 다윗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야를 약속

1. 아브라함의 언약

쪼개어진 제물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통과하시 언약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일으키심.

2. 모세의 언약

출애굽 사건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법을 세우심

3.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국과 그 왕위는 장차 오실 영원한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왕위 예표.

다윗왕조가 무너져갈 때, 예언자들은 더 위대한 날을 예언.

다윗의 위에 앉게 될 한 위대한 자가 올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 (이사야 9:6-7).

4.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 성취하셨다.

5. 초대교회의 선포

베드로는 사도행전 2:30-36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고, 그의 오른 손으로 그를 높이셨고, 그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왕)가 되게 하셨다.”

제 12 장 새언약 예언과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새언약 예언 말씀: “새 언약” (New Covenant, 예레미야 31:31-3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예레미야서에 나온 새언약의 예언

11.

12.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 활동을 시작하여 (1:1)유다왕국 몰락 소용돌이 40년 간 (주전 627-587) 예루살렘에서 예언활동을 했고, 최후는 이집트에서 마쳤다. 그는 아나돗 제사장가문 출신으로 평생 독신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의 활동을 네시기로 나누면 첫째, 요시야왕 시기 (주전 627-621, 유다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로 예레미야가 높이 평가되었던 때이다. 둘째, 여호야김왕 시기 (주전 621-597)는 종교개혁반동 사회 혼란으로 예레미야도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셋째, 시드기야왕 시기 (주전 597-587)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하였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도구라고 예레미야는 항거운동자체를 반대했다. 끝으로, 예레미야는 (느) 유다멸망 후 (주전 587): 예레미야 반대 불구 이집트로 망명파들 끌고 가 최후마쳤다.

2. 새언약의 예언 분석

새언약 예언의 중심은 메시야 약속의 완성자, 언약을 성취하실 새 다윗왕 곧 그리

스도이시다 (30:9). 새언약 선포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이 언약위반으로 저주받아 하나님 선택 백성의 모든 특권 박탈당하여 약속의 땅에서 내쫓기고 “내 백성이 아니라” 불리운 상황에서 멸망의 선포를 넘어 이스라엘의 희망 될 “새언약”이 선포되었다 (예 30:3; 31:31-33; 32:37; 50:6-18; 겔 37:21, 26).

새언약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귀향을 약속하는데 이는 부활을 상징하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참조: 마른 뼈들에게 바람 불어 생명 주심은 성령선물 예언, 겔 37:12).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이전 모든 언약들의 성취를 내포하고 있어, 아브라함언약의 땅과 후손, 그리고 다윗언약의 메시아 왕조와 메시아왕, 그리고 모세 언약의 완전한 율법준수 (겔 37:24, 25)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심으로 메시아 왕으로, 메시아왕국을 세우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자들의 심령에 기록하셔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셔서 (예 31:33; 32:40; 겔 36:26-27; 예 3:17) 모든 믿는 자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함으로 이전 언약관계와 뚜렷이 구별된다.

13. 새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31:34; 33:8; 50:20)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죄의 완전한 용서는 새언약의 핵심적 특징이 되고 있다.

14. 새언약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될 것을 예고하며 (예 31:31; 50:4; 겔 37:15f; 34:23), 새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써, 이전 언약도 영원성을 가 지나 새언약은 종말적 언약으로 마지막 언약이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예 50:5).

옛언약과 관계를 보면, 새언약은 “새 것” (사 42:9; 43:19; 65:17)으로 “새 영” 곧 성령의 선물과 함께 (겔 11:19; 36:26-27)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 새언약은 심령의 비에, 옛언약은 돌비에 새긴 법으로, 새언약은 모든 이전 언약을 대치하게 됨으로 확연하게 다르다.

15. 한편, 새언약이 가진 옛 언약과의 연속성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 없으므로, 새 법을 이제 심령에 쓰실 때, 그 법(토라)은 하나님의 하나의 법으로 구속, 곧 죄용서가 목적이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 신약의 구속은 실제로 죄가 영원히 구속됨으로 구약제사제도가 종결되었다. 신약의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취됨으로 구약을 “무효화”한다. 결론적으로, 새언약은 영원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치될 수 없고, 결정적임으로 종말적 특징을 가진다.

(No possibility exists for an annulment of the New Covenant. It cannot fail to achieve its intended goal of heaping redemptive blessing and restoration on its participants.)

16.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다. 새언약의 축복은 “너와 네 후손들” 곧 개인과 집합을 함께 포함시킨다.

3. 새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1) 신약성경에 나타난 새언약 수립 예식

신약성경은 저주로부터 구원이라는 말로써 새언약을 해석한다. 새 언약 수립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와 히브리서에서 (마26:28와 병행절; 히브리서 9:15-20) 찾을 수 있다. 새언약을 세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언약의 피”로 새언약을 세웠으며, 동시에 옛 언약의 파기로 인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제공해 주셨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로부터 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언약적 저주의 희생 제물로서 그 몸을 바친 것이었다 (히브리서 9:15-2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주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8)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구약에서의 희생 제물의 언어를 반영하여 언약의 저주가 대속물 위에 얹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죽음은 언약 파괴를 지워버림으로써 언약적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누가복음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언급하여 더 깊은 차원을 나타낸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20). 그리스도의 피는 옛 언약의 저주를 지워버릴 뿐 아니라 동시에 새 언약의 축복된 상태로 인도하고 있다. 창조 언약에 남자와 여자에게 발해진 저주와 축

복의 이중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옛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축복된 새 언약을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언약적 저주의 희생으로서 그의 몸과 피를 주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그의 몸은 찢겨졌다. (참조. *계약신학*, 131쪽 이하)

2) 새언약의 특징 (갈라디아서 3:13-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하심이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13-14이다.

(1)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윗언약을 이루심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라고 말함으로 바울은 메시아 언약,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한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으로 저주가 되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것이다. 곧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어, 다윗언약에서 예언한대로 영원한 나라, 새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었다.

(1) 십자가 죽으심으로 믿는 자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모세언약 이 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에서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율법은 범법하는 자에게 정죄를 선포한다. 바로 이 정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범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죄인의 괴수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효능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게 하셨다.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22-23 말씀에서 인용한 것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게 하였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3)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됨으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졌다.

(4) 새언약의 완성: 성령의 선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하심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새언약의 말씀 속에 심령의 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새언약의 특징은 성령의 선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새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결론: 새언약은 가장 복된 소식

갈라디아서 3:13-14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새언약은 복된 소식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 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의 복-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복의 근원이되게 하시는 복-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참조. *계약신학*, 233-275쪽, 성서와 기독교 강의노트, 새언약 부분).